

데이진섬유의 땀처리 기능소재

데이진섬유는 땀에 의한 불쾌감을 경감하는 전시즌 대응 스포츠소재 “트리플드라이캐럿”을 개발하였다. 새로 개발한 발수제 혼입 폴리에스터사를 사용한 소재이며, 2013년 추동과 2014년 춘하용 스포츠웨어의 중점소재로서 전개하고, 캐주얼 및 유니폼 등에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판매 계획은 2013년도에 10만m, 2015년도에 50만m이다.

“트리플드라이캐럿”은 피부측에 폴리에스터 발수사를 사용한 3층 구조의 직·편물 소재이다. 3층 구조에 의한 흡한속건 기능 외에 원단의 피부측에 배치한 폴리에스터 발수사의 완전 소수층이 땀에 의한 냉각과 달라붙는 것을 방지한다.

발수제를 혼입한 폴리에스터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탁에 의한 기능 저하가 적다. 균형감이 높은 직·편물 및 자기조정기능 텍스타일 등 타 기능소재와 조합한 다양한 상품 전개도 가능하다.



<그림 1> 트리플드라이캐럿

♣ 섬유뉴스 (2012. 6. 15)